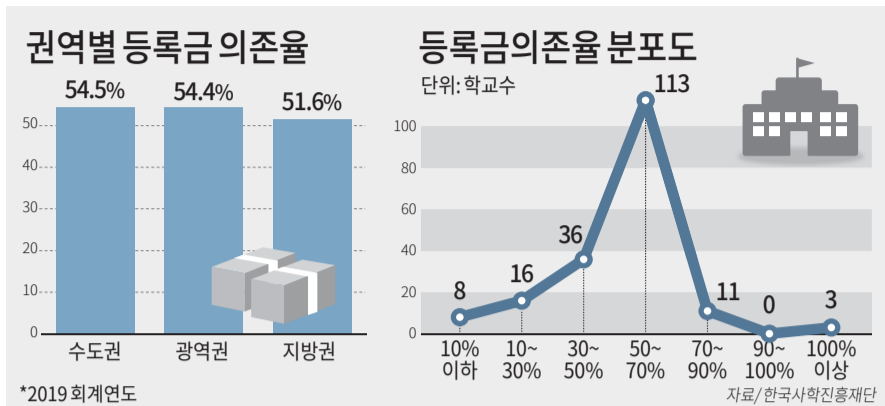


학생 돈으로 버티는 사립대학... 절반 이상 등록금에 의존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서 분석
5년간 의존율 소폭 낮아졌지만
10곳 중 7곳은 50% 이상 의존
3개 대학은 100% 의존하기도

두번째 비중은 국고보조금
수도권에 45.4% '쏠림현상'



사립대학이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5년간 소폭 낮아지며 대학 자립도가 다소 높아졌지만, 사립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인 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익금을 증대해 학생 교육비 및 학교 운영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전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총 재정 규모 49.8조...교비 18.6조 중 등록금이 10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8조 8366억원으로

이중 교비회계는 18조 6989억원이다. 전년 대비 710억원(0.4%) 증가한 수치다.

자금수입총계 대비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등록금 의존율은 53.7%로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총 10조 425억원이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의존율은 소폭 낮아졌다. 5년 치 자금수입총계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54.8%에서 ▲2016회계연도 54.2% ▲2017회계연도 53.3% ▲2018회계연도 54.1% ▲2019회계연도 53.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간 수치는 총

1.1%p 낮아졌다.

그러나 사립대 과반수는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 187개교의 등록금 의존율 분포를 보면 50~70% 구간이 60.4%에 달하는 113개교가 분포돼 있다.

등록금에 100% 의존하는 대학도 3곳이다. 이 밖에 ▲등록금 의존율 30~50% 구간 대학 36곳 ▲10~30% 구간 16곳 ▲70~90% 구간 대학 11곳 ▲10% 이하 구간 대학 8곳 순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4.5%로 가장 높다. 지방권은 51.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전반적으로 50%를 넘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96개교의 자금수입총계는 10조 7828억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4.5%인 5조 8725억원이다.

광역권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도 54.4%로 수도권 대학과 거의 같다. 29개 광역권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2조 9724억원으로 이 중 1조 6168억원이 등록금 수입이다.

지방권으로 가면 등록금 의존율은 비교적 낮아진다. 62개 지방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4조 9437억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2조 5533억원이다. 지방권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51.6%다.

대학 규모별로 등록금 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규모 대학이 56.9%로 가장 높고 대규모대학 54.6%, 소규모대학 43.1% 순이다.

◆정부지원 절반 수도권 차지...학교당 금액은 광역권 '승'

전체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2조 9026억원(15.5%)으로 교비회계 중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국고보조금은 대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다.

최근 5개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

보면 2015회계연도 2조 5260억원에서 ▲2016회계연도 2조 8398억원 ▲2017회계연도 2조 8670억원 ▲2018회계연도 2조 8627억원 ▲2019회계연도 2조 9026억원으로 상승세다. 국고 보조금 중 교육부 보조금이 2조 5960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2조 9026억원 가운데 89.4%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다. 수도권 국고보조금 수입은 1조 3175억원으로 총 보조금 수입의 45.4%를 차지한다. 지방권과 광역권은 각각 9647억원(33.2%), 6204억원(21.4%)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한 학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을 환산해보면 광역권 대학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학교당 평균 금액은 광역권 214억원, 지방권 156억원, 수도권은 137억원순이다.

규모별로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학교가 1조 72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59.5%를 차지한다. 중규모 학교는 8190억원(28.2%), 소규모 학교는 3574억원(12.3%)으로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하대, 청년고용 기여 고용부 장관 표창

찾아가는 취업스터디, 취업 특강
현직선배 멘토링 박람회 등 성과

인하대가 다양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고용노동행정 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용노동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제도다. 올해 인하대는 대학일자리센터와 센터 소속 김연준 컨설턴트 등 개인과 단체 모두 고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센터는 ▲찾아가는 취업스터디 ▲채용트렌드 맞춤형 취업특강인 '인하취업 시리즈 오픈특강' ▲해외취업 준비를



(왼쪽부터)김삼용 인하인재개발원 부원장, 김연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조명우 총장, 김용희 학생지원처장인하인재개발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위한 'K-MOVE사업' ▲현직자선배가 멘토링하는 대규모 직무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채용프로세스의 변화를 예측

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솔루션(AI면접 및 자기소개 대비)을 도입했고 가상현실(VR) 면접기기를 사용하는 모의 면접실도 마련했다.

/이현진 기자

아주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인정

과기정통부 우수기관 선정

아주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11일 아주대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한 '2020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에서 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776개 기관, 5482개 연구

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 기관으로 아주대와 한국식품연구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 세 곳이 선정됐다.

아주대는 "연 1회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비롯해 수시 자체점검, 연 2시간 이상의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물안전관리 위원회 구성하고 의료폐기물 용기 제공 및 전문업체 수거, 의료원 실험동물연구센터와 생물안전 홈페이지 통합 운영, 생물안전 심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디지털대, 국제반영구화장학회와 맞손

신설 학과 뷰티미용전공 제휴협약

서울디지털대는 국제반영구화장학회와 8일 서울디지털대에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학년도에 신설된 뷰티미용전공

은 한국네일미용사회, 약손명가, 아이디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신입입학 후 졸업 시에는 4년제 '미용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으며 피부관리, 화장품, 네일, 헤어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국제반영구화장학회는 뷰티미용 관련 의료인과 학계 교수진, 일반 뷰티인이 함께 모여반영구화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양성시켜 뷰티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범 제정안'이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 비대면 심리상담 실시

화상강의 시스템 활용 실시간 진행

원광디지털대 부설 심리상담센터는 '실시간 화상상담'을 전면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감염 방지 및 지역적 제한 없는 폭넓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총 20회의 프로그램으로 주 1회 50분간 구성된다.

화상상담은 원광디지털대에서 구축한 화상강의 시스템 'WON 라이브'를 활용해 이뤄진다. 'WON 라이브'는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전자정보통신공학 이종근·권재연씨

세종대학교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이종근·권재연 학생(16학번)이 산학협동재단이 주최한 '2020 전국 소셜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서류 평가와 면접을 통해 1차 합격자가, 온라인 워크숍과 본선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회 주제는 '오픈소스 기반의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국내·외 지역 미션해결'이었다. 참가자들은 국내 또는 개발도상국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을 개발해 실생활에 적용했다.

이종근 학생과 권재연 학생은 팀명 'JJ 디자인'으로 참가했으며, '우간다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권재연(왼쪽), 이종근 학생(세종대)

열악한 교육환경'을 국외 사회문제 선정했다. 팀은 저전력으로도 기초 영 어교육이 가능한 '잉글리시터'라는 기기를 개발했다.

'잉글리시터'는 '잉글리시'와 '시터'의 합성어로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제품을 의미한다. 알파벳을 읽고 쓰는 기능과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발음 교육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는 간단한 터치 조작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